

제공일자	2013. 7. 10(수)	담당자	전용식 부실장(동향분석실)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3775-9035, 010-9247-8637 총3매

제목 : 2013년 수입보험료 전망 보다 0.4%p 높은 6.9% 증가 예상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은 『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』 보고서를 발간하였음.
- 201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제한적 회복,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경우 당초(이하 2012년 말 전망) 예상과 같이 **2012년보다 0.5%p 높은 2.5%**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-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, 가계부채 문제,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적지 않아 하방위험이 상방위험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.
 - 2013년 소비자물가는 내수부진 지속,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, 중국의 소비자물가 안정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**0.5%p 낮은 2.0%**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 -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계획 발표에 따라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고채 금리(3년 만기)는 당초 예상과 같이 **2013년 상반기 2.7%, 하반기 2.9%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.**
 - 원/달러 환율은 아베노믹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을 받아 당초 예상보다 **62원 높은 1,112원(2013년 연평균)**이 될 것으로 예측됨.
-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당초 예상보다 **0.4%p 높은 6.9%**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(FY2012 16.4%).
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2012 21.2% 증가한 기저효과로 인해 FY2013 3.8% 증가에 그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으나 이보다 **2.5%p 높**

은 **6.3%**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- 이는 세제 개편에 따른 비과세 저축성보험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저축성보험이 FY2013 8.1% 성장하고, 보장성보험도 종신보험 수요 증가와 암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등으로 FY2012에 이어 2%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

□ 이에 반해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가 FY2013 10.3%(FY2012 9.4%) 증가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으나, **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세 둔화**로 8.0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
-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고 있고 FY2012의 기저효과로 10.3% 성장할 것으로 보임.
- 연금부문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7.9% 성장이 예상됨.
- 일반손해보험은 설비투자,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FY2012와 유사한 6.1% 성장이 전망됨.
- 자동차보험 역시 보험료 인상이 어렵고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FY2012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나 1.7% 성장에 그칠 것임.

□ 한편, 보험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2013년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**보험회사 경영과제**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.

- 첫째,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**다양한 고객 점점 확보가 중요하며, 이에 부합한 채널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.**
- 둘째,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**고객정보관리를 핵심경영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.**
- 셋째,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 및 집중도가 높아 **재보험신용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.**
- 넷째,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유상증자, 이윤확보,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통한 **자율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**

- 다섯째, 개인연금 수요가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금리위험 등 이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.

첨부 : CEO Report 『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』 . 끝.